

급성 신부전이 합병된 횡문근융해증 환자의 치료 효과 : 수액 요법과 간헐적 혈액 투석,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비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강 진 · 양병윤 · 성은영 · 송상현 · 이동원 · 이수봉 · 곽임수

Effect of Treatment in Patient with Rhabdomyolysis Related Acute Renal Failure : Comparison Hydration, Intermittent Hemodialysis and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Jin Kang, Byeong Yun Yang, Eun Young Seong, Sang Heon Song
Dong Won Lee, Soo Bong Lee and Ihm Soo Kwak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배경 및 목적 :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환자의 치료로 수액 요법과 신대체요법이 이용되며, 신대체요법으로는 간헐적 혈액투석과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주로 이용되며,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혈액내 마이오 글로빈 제거에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수액요법과 간헐적 혈액투석,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치료 방법에 따른 예후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까지 횡문근융해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44명 (남자 3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치료 방법으로 수액 요법군 (I), 신대체요법군 (II)으로 분류하고, II군을 다시 간헐적 혈액 투석군 (IIA), 지속적 신대체 요법군 (IIB)으로 구분하여 내원시 환자의 활력징후, APACHE III score 등의 임상적 특성과 사구체 여과율, 혈청 CPK, 마이오글로빈,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등 검사실 소견과 치료 방법에 따른 사망률, 입원기간, 퇴원시 사구체 여과율 등을 검토하였다.

결 과 : I군과 II군은 각각 24명 (남자 18명), 20명 (남자 18명)이며 APACHE III score (51.5 ± 25.6 vs 75.6 ± 34.5 , $p=0.007$)는 II군이 높았고, 사구체 여과율 (27.5 ± 20.0 vs 13.3 ± 7.5 mL/min, $p=0.007$)은 I군이 높았다. II군에서 내원시 높은 APACHE III score와 낮은 신기능을 보였으나, 양군의 입원기간(14.8 ± 7.2 vs 20.0 ± 11.9 일, $p=0.215$)과 생존한 환자의 퇴원시 사구체여과율 (69.2 ± 36.6 vs 57.6 ± 30.2 mL/min, $p=0.521$)은 차이가 없었으며, 사망률 (4.3% vs 50%, $p=0.001$)은 II군에서 의미있게 높았다. IIA군과 IIB군 사이의 연령 (50.2 ± 25.2 vs 54.0 ± 17.9 세, $p=0.869$)과 내원시 활력징후는 차이가 없었고, APACHE III score (64.0 ± 35.0 vs 80.5 ± 34.3 , $p=0.312$)와 사망률 (66.7 vs 42.8%, $p=0.444$)은 IIB군에서 사망률의 낮은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없었다. 입원기간 (25.2 ± 11.9 vs 17.8 ± 11.5 일, $p=0.130$), 생존환자 중 퇴원시 사구체 여과율 (42.0 ± 25.1 vs 62.3 ± 31.1 mL/min, $p=0.371$)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 론 :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환자의 입원 기간과 사망률은 내원시 APACHE III score와 사구체 여과율에 영향을 받으며, 수액요법으로 치료한 군에 비해 신대체 요법으로 치료한 군이 내원시 중등도가 심하였고, 사망률은 높았으나, 생존환자의 예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간헐적 혈액 투석 보다 지속성 신대체요법이 사망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ey Words :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치료

Rhabdomyolysis, Acute renal failure, Treatment